

2009년 서울 지역 피아노 듀오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제언

유 승 지

목차

- I. 서론
 - II. 2009년 서울 지역 피아노 듀오 연주회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 1. 연주곡 분석
 - 2. 연주자 분석
 - 3. 공연장 분석
 - III. 피아노 듀오 연주 발전을 위한 제언
 - 1.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주자 양성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2009년은 한국피아노듀오¹⁾협회²⁾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였다. 창립 당시 생소했던 피아노 듀오 연주에 대한 인식은 지난 20년 동안 많이 바뀌었고 ‘피아노 듀오’는 국내 음악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주 형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처럼 성년을 맞이한 국내 피아노 듀오 음악계가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분석을 통한 제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졌다. 이에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강영만³⁾, 서심미⁴⁾, 박미경·김진양⁵⁾ 등의 영남 지역 연구자들에 의해 대구, 부산 지역의 음악회에 관한 연구들은 두드러졌으나 서울 지역 음악회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피아노 연주회 전반에 관한 연구가 적잖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 피아노 듀오 연주회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1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이루어진 피아노 듀오 연주회⁶⁾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한국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의 현황 파악을 다각도로 시도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는 피아노음악(The Piano), 인터내셔널 피아노(International Piano) 등 피아노 관련 월간지에 게재된 그 달의 음악회 정보(Concert Guide) 코너를 참조하였으나 조사 진행 중 누락된 음악회 정보를 발견하게 되어 월간지 외에 서울 지역 주요 공연장 홈페이지 검색, 인터넷을 통한 연주자, 공연 검색, 연주자 및 공연

-
- 1) 본 연구에서는 ‘duo’의 국문 명칭을 ‘듀오’로 통일한다. 하지만 ‘한국피아노듀오협회’를 호칭할 때는 오래전부터 상용되었던 고유명사인 관계로 ‘듀오’라고 표기한다.
 - 2) 1989년에 창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노 듀오 연구단체이다. 매년 3회의 정기 연주회, 한국 피아노듀오콩쿨 및 한국피아노 듀오작곡콩쿨을 개최하고 있고 일본국제 피아노듀오협회와 연계되어 역대 회장단들(김원복, 강운경, 조삼진, 이방숙, 이민숙)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현재 360명의 회원과 110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piano-duo.co.kr>).
 - 3) 강영만은 “부산 피아노연주문화 총람 및 분석”을 통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부산지역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4) 서심미는 2004년부터 “부산 피아노 연주사(1892-1972),” “부산 피아노연주사(1973-1982),” “부산의 피아노연주회 현황과 분석-1983년에서 1986년까지-,” “부산 피아노연주회 현황과 분석(1987- 1989)” 등 부산지역의 피아노 연주사를 체계적으로 연구 발표하였다.
 - 5) 박미경·김진양은 “대구지역 피아노 연주회 곡목의 총람 및 분석(1960-1991/6)”을 통해 대구 지역에서 열린 피아노 연주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6) 본 연구에서는 한 대의 피아노에서 2명이 연주하는 ‘1 piano 4 hands’ 혹은 두 대의 피아노에서 2명이 연주하는 ‘2 pianos 4 hands’ 뿐 아니라 피아노 듀오 구성을 기본으로 확대된 음악회: 한 피아노에서 6명이 연주하는 ‘1 piano 6 hands,’ 2대 이상의 피아노가 사용된 공연, 피아노 듀오와 다른 악기 혹은 합창이 만나 색다른 조합을 이룬 공연 모두 피아노 듀오 연주회 카테고리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관계자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보강하였다. 그러나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와 실제 공연에서 연주된 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렴이 여의치 않아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 제한적 요소로 작용되었음을 밝힌다.

조사 결과 2009년에 이루어진 124회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에는 117명의 작곡가에 의한 266작품이 올려진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달별 음악회 총람’과 ‘작곡가별 총람’을 작성⁷⁾하였으며 다음 요소들을 상고하였다.

- 1) 연주곡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떠한가?
- 2) 연주자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전문 듀오 연주 팀들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3) 피아노 듀오 연주가 이루어진 공연장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상의 세 가지 사항에 관한 연구 작업은 국내 피아노 듀오 음악회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보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피아노 듀오 교육 전반과 전문 피아노 듀오 연주자 양성에 대한 숙고에도 기반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피아노 듀오 연주회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피아노 듀오 연주가 활성화되고 관련 학문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2009년 서울 지역 피아노 듀오 연주회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1. 연주곡 분석

1) 선호 곡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 동안 서울과 부산지역의 피아노 듀오 연주문화에 대한 연구를 하였던 남성희는 그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연주된 피아노 듀오 작품은 <표 1>과 같다고 하였다.⁸⁾

7)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 총람은 수록하지 못하였다.

<표 1>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연주빈도 상위 작품

순위	작곡가	작품	연주횟수
1	모차르트(1756-1819)	「소나타」 K. 448	53
2	브람스(1833-1897)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56b	47
3	미요(1892-1974)	「스카라무슈」	42
	라흐마니노프(1873-1943)	「모음곡」 No.2 Op.17	42
4	인판테(1883-1958)	「안달루시아 무곡」	38

이와 비교해서 2009년 한 해 동안 연주된 총 266개의 피아노 듀오 작품 중 10회 이상 연주된 작품은 <표 2>와 같이 나타난다. 10년 전에 연주자들이 선호한 작품 중 2009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곡은 브람스(Johannes Brahms, 1756-1819)의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Op.56b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곡도 2009년에 5회 연주된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연주곡 266곡 중 158곡이 1회씩만 연주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연주회에서 자주 연주되는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시대에 상관없이 청중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연주 효과가 높은 음악이 꾸준히 연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윌버그(Mack Wilberg, 1955-)의 「카르멘 주제에 의한 판타지」가 13회 공연된 것은 1대 혹은 2대의 피아노에서 4손을 사용한 음악회 뿐 아니라 8손을 사용하는 음악회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음악회의 프로그램 선정에 대중적인 관심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는 2008년에 방영되었던 TV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의 극중 삽입곡으로 대중들에게 유명해졌고 생상의 「죽음의 무도」는 '2009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 김연아 선수가 1위를 차지할 때 사용한 작품이다. 따라서 사회적인 현상도 음악회의 프로그램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8) 남성희, “한국 피아노 듀오 연주 문화 현황 및 분석: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14쪽.

<표 2> 2009년 연주빈도 상위 작품

순위	작곡가	작품	연주횟수
1	피아졸라(1921-1992)	「리베르탱고」	24
2	모차르트(1756-1819)	「소나타」 K. 448	18
3	아렌스키(1861-1906)	「모음곡」 No.1 Op.15	17
4	인판테(1883-1958)	「안달루시아 무곡」	16
	피아졸라(1921-1992)	「안녕 노니노」	16
5	생상(1835-1921)	「죽음의 무도」	15
6	월버그(1955-)	「카르멘 주제에 의한 판타지」	13
	라흐마니노프(1873-1943)	「모음곡」No.2 Op.17	13
7	브람스(1833-1897)	「헝가리무곡」	12
8	미요(1892-1974)	「스카라무슈」	10
	쇼스타코비치(1906-1975)	「콘체르티노」 Op.94	10
	피아졸라(1921-1992)	「그랜드 탱고」	10

2) 외국 작곡가의 국내 초연 곡

선호 곡들이 자주 무대에 오르는 한편 새로운 레퍼토리의 발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음악회는 <테마양상블 8회 정기 연주회>,⁹⁾ <Concertante Musica Concert: 4대의 피아노, 아름다운 어울림>,¹⁰⁾ <EJ 피아노양상블 연주회>,¹¹⁾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들 연주회에서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뿐 아니라 3대의 피아노, 4대의 피아노를 위한 초연곡이 다양하게 연주되어 피아노 양상블 연주회의 다양한 가능성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Concertante Musica Concert: 4대의 피아노, 아름다운 어울림>라는 표제를 가지고 3대 혹은 4대의 피아노를 위한 색다른 연주회를 기획한 임자향의 인터뷰는 젊은 연주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연주회는 2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고, 이날 연주하는 작품들은 모두 신선하고 음악적인 가치가 충분한 곡들입니다. 외국에서, 도서관에서 힘들게 악보를 구해서 이제 연주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지요.”¹²⁾

9) 2월 4일 세종체임버홀에서 A. Bax의 Moy Mell와 J. Adams의 Halleluja Junction이 국내 초연으로 이루어졌다.

10) 2월 8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되었고 연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C. Czerny *Quartet for Four Pianos*, Op. 230/ D. Milhaud, *Suite for Four Pianos* “Paris”/

G. Frid *Ritmische Studies for Two Pianos* Op. 58a/ M. Feldman, *Extension IV for Three Pianos*/

B. Chapple, *Scherzos*/ L. Hiller, *Fantasy for Three Pianos*.

11) 6월 10일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되었고 A. Schnittke의 *Hommage à I. Stravinsky*, S. Prokofiev, D. Shostakovich와 S. Burger의 *Drei Flotte Bienen*이 국내 초연되었다.

12) 국지연, “아름다운 어울림, 임자향,” 『피아노음악』 322 (2009), 51쪽.

3)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

2009년에 무대에 올려진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은 총 8곡이었다. 8곡 중에서 김대성, 이영자, 황철익의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국내 초연작이고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2009년에 연주된 한국 작곡가의 작품

작곡가	작품	비고
강 훈	「대문놀이 주제에 의한 판타지」	2009년 12월 15일 세종체임버홀에서 <피아니스트 조영방의 우리 함께 춤을>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
김대성	「달무리」	2002년 8월 16일 부암아트홀에서 한국현대음악상상에 의해 초연되었다.
김성기	<i>Dialogue for two pianos</i>	2009년 11월 4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 열린 <한국 피아노두오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초연되었다.
오이돈	「2개의 해금과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한국풍의 살사」	2009년 11월 12일 부암아트홀에서 열린 <제 19회 부암 피아노소사이어티 정기 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이영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변주곡 -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주제로」	2007년 11월 20일 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 초연되었고 <한국페스티벌앙상블의 엘가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 위촉된 작품이다.
한옥미	<i>Beau Soir 2009 for 2 pianos</i>	2009년 10월 14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제 5회 성심 피아노 콰르텟 정기 연주회>에서 초연되었다.
허유람	<i>Modernistic etude for 2 pianos</i>	제 6회 한국피아노두오협회작곡콩쿨 1위 입상작으로 2009년 10월 17일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제 14회 한국 피아노두오콩쿨 입상자 연주회>에서 발표되었다.
황철익	「어린시절의 추억」	2008년 2월 26일 영산아트홀에서 초연되었고 <유승지와 제자들의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 “어린 시절의 추억”>을 위해 위촉된 작품이다.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9년에 연주된 작품, 266곡 중 3%(8곡)만이 한국 작곡가의 작품이고 이러한 작품을 연주하게 되는 경우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작품을 위촉하거나 소개받아 연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창작곡이 1회성 연주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주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러한 현상은 악보나 음원을 쉽게 구할 수 없고 작품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드라노프피아노듀오콩쿨¹³⁾(The Dranoff International Piano Duo Competition) 홈페이지¹⁴⁾에서 이루

13) 피아노 듀오 부문이 개설된 국제 콩쿨이 다양하게 있지만 제네바국제콩쿨협회(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in Geneva)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콩쿨은 미국에서 열리는 드라노프피아노듀오콩쿨(The Dranoff International Piano Duo Competition)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ARD 콩쿨(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of the ARD Munich), 세르비아에서 열리는 베오그라드콩쿨

어지고 있는 활동은 창작곡 연주의 활성화에 주목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소개한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콩쿨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명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위촉받아 콩쿨의 지정곡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국의 창작 피아노 듀오 곡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일단 매회 콩쿨에서 미국에서 가장 이름을 떨치고 있는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한다. 그리고 콩쿨에서 훌륭한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 음악은 음반으로 제작된다. 또한 해당 콩쿨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작곡가에 대한 소개 및 그 작품의 연주를 실제로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음반이나 DVD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도 활발하다. ‘창작’, ‘연주’, ‘보존’, ‘대중화’ 등 모든 과정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중에게 알려진 작품은 <표 4>와 같다.

<표 4> 드라노프피아노듀오콩쿨의 위촉 작품 목록

년도	작곡가	곡명
1987년	Morton Gould	<i>Two Pianos</i>
1989년	Michel Legrand	<i>Variations Concertantes</i>
1991년	William Bolcom	<i>Recuerdos</i>
1993년	Paul Schoenfield	<i>Taschygg</i>
1995년	Ned Rorem	<i>Six Variations for Two Pianos</i>
1997년	John Corigliano	<i>Chiaroscuro</i>
1999년	Robert Xavier Rodriguez	<i>Bachanale</i>
2001년	Lowell Liebermann	<i>Three Lullabies Op.76</i>
2003년	Fred Kaufman	<i>Yin-Yang</i>
2005년	Marcel Bergmann	<i>Urban Pulse</i>
2008년	Sir Richard Rodney Bennett	<i>Liliburleo Variations for Two Pianos</i>

많은 연주자들이 창작곡을 연주하고 싶어 하지만 일단 악보의 구입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악보가 있다 해도 연주 효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곡을 연주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드라노프콩쿨의 홈페이지와 같이 새로운 곡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놓는 장치가 있다면 연주자들의 창작곡 연주에 대한 관심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기회 또한 확대될 것이다.

(International “Jeunesses Musicales” Competition-Belgrade) 뿐이다(<http://www.wfmc.org>).

14) <http://dranoff2piano.org/commissions.htm>

4) 프로그램의 구성

(1) 집중 탐구

11월 12일에 열린 클라우스 헬비히와 이미주의 음악회는 <슈베르트 프로젝트>라는 표제로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집중 구성한 음악회를 통해 청중들이 한 작곡가에 대해 깊이 몰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12월 15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조영방의 우리 함께 춤을>도 모든 프로그램이 춤곡이었으며 그러한 구성을 표제로 드러냈다. 이러한 음악회들은 청중들의 주목을 받기도 쉽고 전문적으로 피아노 듀오를 연주하고자 하는 이들의 문헌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루스 슬렌지스카(Ruth Slenczynska, 1925-)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노블티 프로그램’(novelty program)이라고 지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블티 프로그램은 토카타(toccatas)만으로, 연습곡(etudes)만으로, 혹은 전주곡(preludes)만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은 꽤 교육적 가치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작곡가들이 같은 유형의 곡을 어떻게 각각 다르게 취급했는가를 보여 준다.¹⁵⁾

하지만 통일된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OOO, OOO 피아노 듀오 음악회>와 같이 연주자의 이름만 나열되어 연주회 구성 의도가 잘 드러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특정 주제를 탐구하는 음악회를 기획하는 연주자들이 음악회 내용에 맞추어 창의적인 제목을 설정하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인다면 청중들에게 음악회의 구성 의도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음악회 홍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이 특정 주제를 탐구하는 피아노 듀오 음악회를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연주하는 듀오 팀들의 활동 중 2009년에 두드러지게 부각된 음악회는 권수미, 유지수의 <음악이 주는 선물 시리즈>¹⁶⁾, 권수진, 최인숙의 <테마가 있는 음악회 시리즈>¹⁷⁾, Duo Ryu(유승지, 유종희)의 <세계로 가는 음악 여행 시리즈>¹⁸⁾ 등이 있다.

15) Ruth Slenczynska, *Music at Your Fingertips: Advice For The Artist And Amateur on Playing The Piano* (New York: Doubleday & Co, 1961); 손국임 역, 『피아노 음악의 창조: 입문에서 연주까지』 (서울: 음악춘추사, 1981), 87쪽.

16) 2005년부터 시작한 <음악이 주는 선물>시리즈는 <춤곡>, <20세기 음악 여행>, <음악동화>, <교과서속의 음악 이야기> 등을 부제로 가지면서 특정 주제들을 연구 발표해오고 있다.

17) 2006년부터 시리즈를 시작하였고 <테마가 있는 음악회 시리즈>는 *Imitation to Dance, Festival, Songs of Birds, Oriental Fantasy*라는 부제를 가지면서 음악회를 계속해오고 있다(권수진 인터뷰 2010.3.17).

(2) 피아노 앙상블의 색다른 시도

여러 대의 피아노가 등장한 최초의 연주회는 1869년 10월 5일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에서 열렸다. 루이스 모로 고차크(Louis Moreau Gottschalk)의 ‘몬스터 콘서트(monster concerts)’에서 처음으로 서른한 명의 피아니스트들이 열여섯 대의 피아노를 한 무대에서 연주한 것이다.¹⁹⁾ 현재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5월 19일에 이루어진 제 7회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 동창회 정기연주회는 대중에게 잘 알려진 클래식 소품을 피아노 5대를 위해 편곡한 중국 작곡가 제인 탄(N. Jane Tan)의 작품들이 연주되었고, 8월 23일 서울 피아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연주회, 12월 27일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에서 여러 대의 피아노를 위한 다양한 곡들을 청중들에게 선보였다.

피아노를 여러 대 놓고 연주하는 음악회 외에 피아노와 다른 악기와의 조합을 시도하는 음악회들²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9년 12월 27일 11회 연주회가 개최된 한국피아노학회의 ‘그랜드피아노콘서트’에 대해 장혜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연을 통해 수많은 레퍼토리가 개발되거나 편곡을 거쳐 연주되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창작곡도 무대에 올랐으며, 독주 악기로 인식되어온 피아노가 가진 상상불적인 면과 오케스트라적인 잠재력을 일깨웠다.²¹⁾

그랜드피아노콘서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항상 마지막에 연주되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의 「합창교향곡」이다. 6대의 피아노에서 12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성악 4중창, 합창단, 타악, 관악 주자가 함께 연주하면서 다른 악기들과의

18) 2005년에 창단된 Duo Ryu는 <춤추는 피아노>, <메시앙 탄생 백주년 기념 음악회>등을 개최하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로 가는 음악 여행 시리즈>를 통해 나라별 피아노 듀오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각 시리즈는 다음과 같은 부제를 가진다. <파리, 새로 깨어나다! - 프랑스 음악>, <전통과 영혼의 만남 - 독일 음악>, <대륙의 노래 - 러시아 음악>, <신세계의 꿈 - 미국 음악>, <아리랑 아라리요 - 한국 음악>.

19) Maurice Hinson, *Music for more than One Piano: An Annotated Gui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 이민숙, 이승경 역, 『한 대 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레퍼토리』(서울: 뮤직필, 2005), 8쪽.

20) 그동안 한국피아노두오협회는 정기연주회를 통해 타악기, 드럼과 콘트라베이스, 오르간, 한국 전통 악기 등 피아노와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음악회들을 기획해서 연주회를 개최해 왔다.

21) 윤석진,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를 개최하고 가꾸어온 장혜원,” 『인터내셔널 피아노』 82 (2009), 25쪽.

조합을 통해 오케스트라로는 경험할 수 없는 피아노의 새로운 음색을 들려준다. 피아노와 다른 악기의 색다른 만남은 10월 11일 동인회²²⁾ 연주와 12월 14일 이루어진 한국베토벤협회의 연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 <2 Pianos & Jazz가 함께하는 음악회>라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개최된 동인회 음악회는 콘트라베이스와 드럼이 피아노 2대와 함께 연주되었고 12월 14일에 이루어진 한국베토벤협회의 제3회 정기 연주회에서는 엘렉톤(electone)과 팀파니가 피아노와 앙상블을 이뤘다.

피아노와 다른 악기를 조합하는 시도는 연습 장소의 확보, 연주 비용 등과 관련해서 연주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 그러므로 ‘학회’나 ‘동문음악회’ 등 여러 명의 연주자가 연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경우에 개인 연주자가 하기 어려운 새로운 장르 실험을 다양하게 시도하면 연주자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2008년 11월 6일에 이루어진 <오르간 & 피아노 듀오 연주회>처럼 두 개의 동문 단체(‘동인회’와 ‘Diapason 오르간 동우회’²³⁾)가 협력하여 음악회를 개최한 사례는 앞으로 여러 명이 참가하는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체에게 이상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3) 특별한 대상 혹은 목적을 위한 음악회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음악회 타이틀이 음악적 내용과 상관없이 특별한 대상이나 음악회의 목적과 관련해서 정해진 음악회들도 있었다.

<표 5> 특별한 대상 혹은 목적을 위한 음악회

음악회 명칭 및 연주자	대상 및 목적	일시	개최장소
이기정교수제자음악회: Valentine's Party	연인	2월 14일	모차르트홀
부암피아노소사이어터 청소년음악회	청소년	8월 6일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피아스트라 창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지구온난화 채식으로 해결해요	사회적 이슈전달	8월 23일	KBS홀
피아노 앙상블 Two & More: For Children	어린이	11월 13일	영산그레이스홀
김수련, 황혜전 듀오음악회: 난민인권센터후원기금마련음악회	난민인권센터 후원	11월 14일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제 8회 협성피아노앙상블 정기연주회: 고3 수험생을 위한 해설이 있는 음악회	청소년	11월 27일	세라믹팔레스홀
한구석 밝히기 무등 193 정기연주회	시각장애인 개안수술비 지원	12월 14일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22) 한양대학교 박정운 교수 문하생으로 이루어진 단체.

23) 연세대학교 조명자 교수 문하생으로 이루어진 단체.

이러한 음악회들은 청중의 눈높이나 음악회 취지에 맞는 세심한 선곡은 물론 음악 외적인 요소를 첨가해 일반 청중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음악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배려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서울피아스트라의 8월 23일 연주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 <지구온난화 채식으로 해결해요>라는 타이틀로 기획된 이 음악회는 프로그램도 자연에 관련된 곡들²⁴⁾을 선정하여 음악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전달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구 온난화 비디오 감상, 채식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전문가의 사회, 공연장 로비에서의 채식 시음 행사, 다양한 전시 등을 통해 음악을 통한 환경교육을 동시에 실천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사회봉사적 측면이 강한 음악회들은 개최시기도 음악회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되는데 2009년 달별 피아노 듀오 연주회 개최 횟수를 살펴본 통계는 <표 6>과 같다.

<표 6> 2009년 달별 피아노 듀오 연주회 개최 횟수 비교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주	4회	6회	9회	8회	12회	11회	7회	7회	12회	15회	18회	16회

방학 기간 중의 음악회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을 활용한다면 청중 동원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협성피아노양상블’의 경우처럼 입시를 마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11월에 개최한다거나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5월에 연주회를 개최하는 것 등은 청중들의 발걸음을 음악회장으로 이끌기에 좋을 것이다.

2. 연주자 분석

1) 혈연, 부부관계 조합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1791)와 누이 난네르(Maria Anna Mozart 1751-1829),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Bartholdy, 1809-1847)과 누이 파니(Fanny Mendelssohn, 1805-1847)는 역사에서 중요한 남매 듀오 연주자였다. 현대에 와서도 혈연관계로 맺어진 피아노 듀오 팀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라베끄 자매(Katia Labeque, 1950- /Marielle Labèque,

24) 자연과 관련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인형 중 러시아 춤 ‘트레팍’과 ‘꽃들의 왈츠’/피아노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우리 동요/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몰다우’/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서곡/드보르작 교향곡 9번 ‘신세계’ 등이 연주되었다.

1952-)²⁵)가 대표적이고 그 외 피케닐 자매(Güher & Süher Pekinel 1953-)²⁶), 콘타르스키 형제(Aloys Kontarsky, 1931- /Alfons Kontarsky, 1932-)²⁷), 야블론스키 형제(Peter Jablonski, 1971- /Patrik Jablonski, 1974-)²⁸)를 비롯해 우고르스키 부녀(Anatol Ugorski, 1942- /Dina Ugorski)²⁹)처럼 부모, 자식 간의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연주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혈연관계로 맺어진 것 외에 두드러지는 조합은 부부관계로 구성된 것이다. 슈만 부부(Robert Schumann, 1810-1856/Clara Schumann, 1819-1896), 바르톡 부부(Bela Bartok, 1881-1945/Ditta Bartok, 1902-1982)³⁰)처럼 브론스키, 바빈 듀오(Vitya Vronsky, 1908-1972/ Victor Babin, 1909-1992)³¹), 위클리, 알간브라이트 듀오(Dallas Weekley/ Nancy Arganbright)³²), 듀오 크로멜링크(Duo Crommelynck)³³), 앤토니 골드스톤(Anthony Goldstone)과 캐롤라인 클레모우(Caroline Clemmow)부부³⁴), 드라노프피아노듀오콩쿨의 창시자인 드라노프 듀오

25) 프랑스 태생의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자매 피아노 듀오 팀으로 바흐에서부터 21세기 작곡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연주해오고 있고 피아노 듀오 연주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하여 KML 재단(www.kmlfondazione.org)을 설립하여 그들의 음악 세계와 연극, 미술, 영화, 무용, 문학, 교육이 통합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www.labeque.com).

26) 터키국적의 쌍둥이 자매 피아노 듀오 팀으로 9세에 앙카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함으로써 데뷔연주회를 하였고 바흐에서 블레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해오고 있고 ‘피케닐음악교육프로젝트’를 통해 재능 있는 꼬마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www.pekinel.com).

27) 독일 태생의 형제 피아노 듀오 팀인 콘타르스키 형제는 1955년 독일 뮌헨 국제 콩쿨의 피아노 듀오 부분에서 우승함으로써 유명해졌고 많은 현대 음악을 초연한 것으로 유명하다(http://en.wikipedia.org/wiki/Aloys_and_Alfons_Kontarsky).

28) 야블론스키 형제는 2001년에 데뷔음반을 출시하였는데 그 음반에는 근·현대 작곡가들(Martin, Honegger, Stravinsky)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고 특히 세계 초연인 오네게르의 파르티타가 수록되어 있다(www.jablonskibrothers.com).

29) 부녀지간으로 구성된 이 듀오 팀은 2004년 EBS레이블로 바흐, 모차르트,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을 음반으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30)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소나타(Sonata for 2 Pianos and Percussion)는 1938년 바르톡 부부에 의해 스위스에서 초연이 되었다.

31) 슈나벨(Artur Schnabel)의 제자로 만난 두 러시아 피아니스트는 결혼과 동시에 듀오 피아노 팀을 결성하였고 뉴스위크로부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피아노 듀오 팀이라는 격찬을 받으며 활동을 하였다.

32)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듀오 팀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8세기부터 20세기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듀오 곡들을 알리고 피아노 듀오를 교수학적으로 접근하여 마스터클래스와 워크숍을 통해 피아노 듀오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 전하였다.

33) 듀오크로멜링크는 패트릭 크로멜링크(Patrick Crommelynck, 1942-1994)와 태코 구와타(Taeko Kuwata, 1945-1994)가 결혼과 함께 구성한 피아노 듀오 팀으로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 동안 스위스의 ‘클라베스 레이블’(Claves Label)로 수많은 음반을 남겼다.

34) 슈베르트, 모차르트의 피아노 이중주를 위한 원곡 녹음은 물론이고 다른 악기 편성의 다양한 작품들을 피아노 2중주곡으로 직접 편곡하는 작업을 통해 음반 작업을 하는 등 피아노 듀오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음악 세계를 개척한 영국출신의 대표적 피아노 듀오 팀이다.

(Murray & Loretta Dranoff)³⁵역시 부부 듀오 팀이었다.

이렇듯 혈연관계 혹은 부부로 이루어진 팀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같이 연습하는 것이 용이해야 좋은 연주를 준비할 수 있는 듀오의 특성상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혈연관계, 혹은 부부 관계로 맺어진 팀이 전문 듀오 연주자로 성장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피아노 듀오 연주 팀의 구성 배경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물론 2009년에 듀오 연주회를 개최한 이대욱, 문용희; 클라우스 헬비히, 이미주; 이준성, 이은영은 부부로 이루어진 팀이지만 국내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듀오 팀은 학연, 지연에 의한 동료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문 피아노 앙상블 연주 단체

드라노프 피아노 듀오 콩쿨의 경우 참가 지원서 양식에 참가팀이 개최한 연주회의 프로그램을 적어도 5개 이상 적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심의는 적어도 5회 이상은 듀오 연주회를 거쳐야 듀오 팀으로서의 이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한 제안으로 여겨진다.

또한 외국의 유명 연주자들의 경우 1년에 1회성 연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십 회의 연주회를 개최하고 피아노듀오에 관련된 워크숍 개최, 음악 캠프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등 연주와 연구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피아노 듀오 연주 활동을 하는 연주자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 연주자들의 행보는 현재 피아노 듀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들이 앞으로 차별화된 활동을 해나가는데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진다.

한국피아노듀오협회가 창립된 이래 지난 20년간 수많은 듀오 연주회들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특정 팀이 역사를 가지고 꾸준한 연주 활동을 하는 경우는 손에 꼽혔다. 또한 동일한 연주자와 연주하지 않고 파트너가 바뀌면서 연주회를 개최한 경우도 많았다. 지속적인 연주를 통해 팀의 독특한 음색이나 개성을 만들어 가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라베끄 자매의 경우에도 두 자매가 확연하게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환상적인 음악세계를 창출해낸 것으로 볼 때 전문 피아노 듀오 연주자

35) 1946년부터 1975년까지 활동한 부부 피아노 듀오 팀으로 남편(Murray Dranoff) 사후에 부인이 드라노프 피아노듀오콩쿨을 창시하였다. 이 콩쿨은 현재 듀오 피아니스트들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www.dranoff2piano.org).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도 2009년 제 16회 슈베르트피아노 듀오국제콩쿠르³⁶⁾(Schubert International Piano Duo Competition)에서 러시아에서 수학하고 있는 렘넌트피아노듀오(Remnant Piano Duo): 전현주, 전희진 자매 듀오 팀이 우승하였다는 낭보가 전해졌고 2009년 한 해에만 55개의 듀오 팀이 연주회를 개최한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많은 전문 듀오 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년 동안 피아노 앙상블 레퍼토리를 확대해 온 전문 피아노 앙상블 연주 단체의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그 대표적인 팀은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³⁷⁾, 테마앙상블³⁸⁾, 함음피아노콰르텟³⁹⁾으로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 팀들은 다양한 레퍼토리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협회 혹은 학회를 통해 피아노 앙상블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서울피아스트라⁴⁰⁾, 한구석밝히기무등193클럽⁴¹⁾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도 프랑스음악연구회, 베토벤협회, 한국피아노학회 등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3) 사제(師弟) 음악회

96년 9월 21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김원복 교수와 함께하는 3대 사제 음악회>⁴²⁾는

-
- 36) 슈베르트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1978년에 창설되어 2년마다 한 번씩 열린다.
- 37) 부암피아노소사이어티(BPS)는 ‘국내창작음악과 현대음악의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1997년 5월 창단 후 2009년까지 19회의 기획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창단 멤버는 곽노희, 김유철, 문현옥, 조현수, 이주엽, 이형민, 주희성, 지주은 등이고 2008년 강현주, 김태진, 김희균, 윤혜영, 이주엽, 이형민, 주희성, 지주은으로 멤버가 교체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김희균 인터뷰 2010.2.4).
- 38) 테마앙상블은 1998년 창단되었고 창단 멤버는 김성은, 김주영, 박유미이고 음악회를 개최할 때마다 객원으로 다른 연주자를 초빙하여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9년에 8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빨랑 피아노 듀오 전곡 연주회>, <피아노로 듣는 발레 음악>, <코플란드 피아노 듀오 콘서트>, <여름! 두 대의 피아노로 떠나는 여행>, <사색지몽>, <밤의 향연>, <페러디 파라디소>, <에텐의 정원>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기획 음악회를 개최해왔다(김성은 인터뷰 2010.3.15).
- 39) 창단 멤버는 장리리, 신영주, 최문선, 손영경이고 현재는 한양대학교 동문인 장리리, 신영주, 김지미, 백삼열로 구성된 피아노 앙상블 팀으로 1999년 창단 후 2009년에 10회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주로 여덟 손으로 연주되는 곡을 전문적으로 연구 발표하였고 연주회를 위해 작곡가에게 편곡 작업을 위촉하는 등 의미 있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장리리 인터뷰 2010.3.15).
- 40) 서울피아스트라(Seoul Piastra)는 삼육대 서행철 교수에 의해 1999년 8월 결성되었고 2009년에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까지 17회의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피아스트라’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합성어로 피아노의 고유한 음색과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겸비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노 오케스트라’를 의미한다(www.seoulpiastra.com).
- 41) 1999년 창단되었고 2009년까지 10회의 공연을 개최하였고 연주회의 수익금을 시각장애인 개인 수술을 위해 기탁하고 있는 연주 단체이다. 이러한 정기 연주회 외에 한 달에 한 번씩 양로원, 교도소, 맹아원 등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천하고 있다(전경주 인터뷰 2010. 3.15).
- 42) 3대에 걸친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이루어진 김원복, 변화경, 백혜선이 연주자로 참여하였다.

사제지간의 특별한 만남을 꾀하는 음악회였다. 그 후 많은 사제지간으로 구성된 음악회들이 기획되었는데 <OOO 제자음악회>와 같이 지도 교수의 이름을 내걸고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모임의 성격을 규명하는 이름을 만들어 음악회의 타이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2009년에 이루어진 사제 음악회는 총 19회였는데 그 중 민음회⁴³⁾, 동인회⁴⁴⁾, 미음⁴⁵⁾, 성심피아노콰르텟⁴⁶⁾, 프로뮤직⁴⁷⁾, 희연회⁴⁸⁾ 등은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사제지간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단체이다.

4) 학교 이름이 부각된 음악회

학교 이름이 부각된 음악회들도 있는데 이러한 음악회는 1)수업 시간에 공부한 것을 발표하는 음악회, 2)교수음악회의 성격을 띠는 음악회, 3)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의 음악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음악회는 학교의 이름도 홍보하고 학생들 혹은 교수들의 애교심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사용된다. 2009년에는 개최된 음악회 중에서는 나사렛 대학교 피아노 앙상블 클래스⁴⁹⁾, 명지콘서바토리피아노앙상블, 세종대 평생교육원음악회, 국제피아노음악협회⁵⁰⁾, 연세대학교음악대학피아노동문음악회, 한세대 Mens피아노앙상블, 협성 피아노 앙상블, UNT피아니스트 등의 음악회가 학교 이름이 부각된 음악회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중에서 나사렛 대학의 강성애 교수 앙상블 클래스는 2009년에 10주년 축하 음악회를 가졌는데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면서 학생들에게 피아노 듀오 음악을 소개해 오고 듀오 연주에 대한 동기 부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귀감이 된다.

이상에서 제시된 분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피아노 듀오 연주를 보다 친숙하게 청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5월 10일과 1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었다.

43) 상명대 이민숙 교수 제자들의 모임으로 2009년에 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하였다.

44) 한양대 박정윤 명예 교수 제자들의 모임으로 2009년에 8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45) 협성대 박성미 교수 제자 모임으로 2009년 5회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46) 카톨릭대 김영숙 교수와 제자로 구성된 연주 팀으로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 5회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스승과 제자로 구성된 팀이지만 학교의 이름을 부각시켜 이름이 명명한 것과 매해 4명의 연주자가 출연하는 것이 이채롭다(김영숙 인터뷰 2010.3.18).

47) 한양대 윤미경 교수 제자 모임으로 2009년 6회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48) 연세대 안희숙 명예 교수 제자 모임으로 2009년에 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49) 나사렛대학교 강성애 교수의 앙상블 클래스를 수강한 학생들로 구성된 연주회로 2000년에 시작되었다(강성애 인터뷰 2010.3.18).

50)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김경리 교수에 의해 2003년 결성되었고 2009년까지 6회 연주회를 개최하였다(김경리 인터뷰 2010.3.15).

이 음악회에서 백건우와 차세대 연주자 김태형, 김선욱, 김준희가 피아노를 1대에서 4대까지 사용하는 다양한 조합으로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두터운 팬 층을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연주자들이 일반 청중들에게 여러 형태의 피아노 앙상블 음악을 소개함으로써 피아노 듀오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공연장 분석

1) 공연장별 연주회 개최 횟수

본 연구의 조사 과정에서 연주자들이 사용한 공연장은 총 18개로 집계되었고 공연장별 연주회 개최 횟수는 <표 7>과 같이 나타난다.

<표 7> 공연장별 연주회 횟수 비교

공연장	횟수	공연장	횟수	공연장	횟수
금호아트홀	9	나루아트센터	1	마포아트센터	1
명동성당대성전	1	모차르트홀	29	문호아트홀	1
부암아트홀	10	세라믹팔레스홀	5	세종체임버홀	9
영산그레이스홀	12	영산아트홀	17	영산양재홀	4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12	예술의전당콘서트홀	5	연세대학교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1
이원아트홀	5	KAG 아트홀	1	KBS홀	1

총 62회의 연주회가 열린 소규모 공연장⁵¹⁾ 중 KAG홀이 120석으로 가장 좌석 수가 적었고 문호아트홀이 210석으로 가장 좌석 수가 많았으며 모차르트홀은 좌석 수에 상관없이 62회 공연 중 29회가 열려 47%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350석 이상 700석 이하의 중간규모 공연장⁵²⁾에서는 총 52회의 공연이 열렸는데 이들 공연장 중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이 354석으로 가장 좌석수가 적었고 영산아트홀이 621석으로 좌석 수가 가장 많았다. 중간규모공연장에서 열린 52회의 공연 중 17회의 공연이 개최된 영산아트홀이 33%의 점유율을, 7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⁵³⁾중에서는 2,523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 전

51) 해당 공연장은 부암아트홀, 영산그레이스홀, 이원아트홀, 모차르트홀, 문호아트홀, 영산양재홀, KAG아트홀이다.

52) 해당 공연장은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세라믹팔레스홀, 영산아트홀, 세종체임버홀이다.

53) 해당 공연장은 나루아트센터, 마포아트센터,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 KBS홀이다.

체 공연 10회 중 5회를 개최함으로써 5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모차르트홀이 소규모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연주회가 열린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대관료와 청중의 동원이 비교적 용이한 소규모 공연장을 연주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지만 각 공연장의 피아노 구비 현황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연장이 피아노 듀오 공연을 하기에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2) 공연장별 피아노 보유 현황

두 대의 피아노가 조화로운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연주의 성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피아노 듀오 연주의 특성상 피아노 보유 현황은 공연장의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가장 연주가 많이 이루어진 모차르트홀 대관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모차르트홀에는 스타인웨이 2대와 파치올리 1대가 있는데 보통 개인 독주회에서 연주자들이 파치올리를 선택해서 많이 치지만 듀오 연주회에서는 스타인웨이 피아노 2대(C227과 B211)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주자들이 사이즈에서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음색이 비슷한 피아노를 선호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이다. 조사 대상이었던 18개 공연장 중 같은 모델의 피아노를 2대 가지고 있는 공연장⁵⁴⁾은 금호아트홀, 세종문화회관대강당, 세종체임버홀, 영산아트홀,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예술의전당콘서트홀, KBS홀이 있다. 이상에서 열거된 공연장은 모두 350석 이상의 주요 공연장이고, 전체 18개 공연장의 39%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또한 350석 이상의 공연장의 경우에도 피아노 사이즈가 달라 피아노 듀오를 연주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공연장도 있음이 드러났다. 한편, 예술의 전당콘서트홀의 경우 리사이틀홀의 피아노와 콘서트홀의 피아노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D274 사이즈 스타인웨이 피아노 5대가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각 공연장별 시설 보유 현황은 <표 8>과 같다.

54) KAG 아트홀은 스타인웨이 D274모델이 아니라 백스타인 190cm 모델을 두 대 가지고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8> 2009년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열린 공연장⁵⁵⁾의 시설 보유 현황

연주 장소	설립연도	공연장규모	피아노보유현황	대기실 보유 현황	전동매립 스크린 보유현황
금호아트홀	2000년	390석	스타인웨이 2대(D274)	3개	O
나루아트센터	2005년	700석	스타인웨이 1대(D274)	5개	O
마포아트센터	2008년	781석	스타인웨이 1대(D274) /삼익1대(275E)	7개	X
명동성당대성전 ⁵⁶⁾					
모차르트홀	2004년	201석	스타인웨이2대(C227, B211) /파치올리1대(F278)	1개	X
문호아트홀	2006년	210석	스타인웨이1대(B211)	1개	O
부암아트홀	1995년	160석	스타인웨이 1대(D274) /영창 1대(Y275)	1개	X
세라믹팔레스홀	2003년	440석	스타인웨이 1대(D274) /야마하 1대(C6)	3개	O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⁵⁷⁾	2004년	3022석	스타인웨이 2대(D274)	16개	O
세종채임버홀	2006년	443석	스타인웨이 2대(D274)	3개	X
영산그레이스홀	2001년	200석	스타인웨이 1대(B211) /파치올리1대(F228)	1개	X
영산아트홀	1999년	621석	스타인웨이 2대(D274) /뵘젠도르퍼 1대(280)	5개	O
영산양재홀	2003년	201석	스타인웨이 1대(D274) / 뵘젠도르퍼 1대(225)	1개	O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988년	354석	스타인웨이 2대(D274)	5개	O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988년	2523석	스타인웨이 3대(D274)/ 야마하 1대(CFIII)	7개	O
연세대학교백주년 기념관 콘서트홀	1988년	904석	스타인웨이 1대(D274) /백스타인 1대(D282)	3개	O
이원아트홀	2000년	140석	스타인웨이 1대 (D274) /야마하 1대(C5)	1개	O
호암아트홀	1985년	643석	스타인웨이 1대 (D274) /야마하 1대 (C3)	1개	X
KAG 아트홀 (방배동)	2008년	120석	백스타인2대(M/P192)	1개	X
KBS홀	1991년	1,661석	스타인웨이 2대(D274)	10개	O

55) 서울의 주요 공연장 중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호암아트홀은 2009년에 피아노 듀오 공연이 열리지 않았지만 서울 지역의 주요 공연장이므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56) 전문적인 음악공연장이 아니어서 정확한 좌석수와 피아노 기종은 알 수가 없었다. 다만 그랜드

3) 공연장별 부대시설 현황

피아노 보유 현황 외에도 여러 명이 출연하는 경우⁵⁸⁾가 많은 피아노 듀오 연주회의 특성상 무대 뒤의 대기실의 구비 상황도 연주자들이 장소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영산아트홀의 경우 피아노 보유대수가 많고 무대 뒤 대기실 공간이 넉넉하여 여러 사람이 출연하는 음악회를 하기에 무척 좋은 이점 때문에 350석 이상의 공연장 중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연장이 된 것 같다.

또한 2009년에 이루어진 피아노 듀오 음악회들을 살펴보면 표제가 있는 음악회는 37회로 전체 공연의 30%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표제가 있는 음악회들은 특정 대상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해설이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더욱 연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전동매립스크린이 구비되지 않은 공연장도 많다. 이런 공연장에서는 프로젝터나 스크린을 별도로 빌려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청중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피아노 보유 현황, 대기실 구비 상황 외에 시청각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공연장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동 대성당이 공연장으로 선택된 것은 공연장이 다변화하는 현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이와 같이 음악에 어울리는 공간 선택은 청중들에게 음악을 듣는 즐거움 뿐 아니라 특별한 공간을 방문하는 즐거움을 주고 연주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Ⅲ. 피아노 듀오 연주의 발전을 위한 제언

2009년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분석해 본 결과, 연주자들의 다양한 시도로 과거에 비해 피아노 듀오 연주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처럼 1년에 수십 회 피아노 듀오 연주회를 가지면서 피아노 듀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전문 듀오 연주 팀이 부재하다는 것은 해결되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문 듀오 연주자의 양성은 피아노 듀오 관련 학문이 도약 발전하기 위한 필

피아노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인터뷰(2010.2.3)를 통해 알게 되었다.

57) 1961년 우남회관으로 시작되어 1972년 화재로 손실되었다가 1978년 재개관하였고 2004년 리모델링 공사 후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58) 총 124회 연주회 중 2인조로만 이루어진 음악회가 53회이고 나머지 71회는 3인 이상이 출연하는 음악회이다.

수 과제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교육 받은 피아니스트들이 외국의 유명 콩쿨에 나가 입상하는 사례들이 빈번한데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콩쿨에서도 한국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입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외국의 피아노 듀오 콩쿨 역대 입상자의 명단이나 심사 위원의 명단을 보면 일본, 중국의 피아니스트들은 눈에 띄는 반면 한국의 피아니스트들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피아노 듀오의 교육적 효과와 전문 연주자 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으로 피아노 듀오 연주가 교육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국내에서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연주 팀이 육성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영국의 교육학자 에디트 크로셔(Edith Crawshaw)는 “함께 할 때 비로소 즐거워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⁵⁹⁾ 혼자서 연습 하는 시간이 많은 피아노 연주자들에게 피아노 듀오는 피아노를 함께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유쾌하게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피아노 듀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맥그로우(Cameron McGraw)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아노 듀오는 하나의 악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과 음악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매우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 . . 피아노 듀오는 음악성, 상상력 연주 능력, 독보력, 리듬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교수법적 도구들을 제공하며 아마추어에서부터 전문연주자에 이르는 모든 레벨의 연주자들이 여러 시대에 걸친 풍부한 레퍼토리를 통해 다양한 테크닉을 습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⁶⁰⁾

이상에서 설명된 것처럼 피아노 듀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피아노 듀오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서울 시내 주요 대학⁶¹⁾의 피아노 듀오 관련 교과목의 개설 현황을 조사

59) 이민숙, 이승경 역, 『한 대 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레퍼토리』 (서울: 뮤직필, 2005), 11쪽.

60) Cameron McGraw, *Piano Duet Repertoire: Music Originally Written for One Piano, Four Han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 ix.

해보니 ‘피아노 듀오,’ ‘피아노 앙상블,’ ‘피아노 실내악 문헌,’ ‘기악앙상블,’ ‘실내악,’ ‘실내 앙상블’ 등의 과목명으로 피아노앙상블을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다. 조사 대상 학교 중 숙대, 이대, 한양대는 2학기 동안 과목을 신청할 수 있었고 경희대, 상명대는 4학기, 연세대, 한국예술종합학교는 6학기까지 과목 이수가 가능했다. 수업의 진행은 대부분 마스터 클래스 혹은 개인 레슨을 통해 담당 교수에게 레슨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학기말에는 그 학기에 배운 곡을 시험을 보거나 연주하는 과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수업의 유형은 곡의 완성도를 높이고 수준에 맞는 앙상블 곡을 공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본인이 연주하지 않은 다양한 앙상블 곡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음악대학출신들이 졸업 후 전문적인 피아노 연주자의 길을 걷기 보다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레슨의 형태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피아노 전공 교, 강사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졌지만 관현악 전공의 교, 강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이 피아노 듀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에는 전문 피아노듀오 연주자 중에서 피아노 듀오 학습 문헌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주자들⁶²⁾의 활동이 다양하고 피아노 교수법학자들도 피아노 학습 순서에 맞춰 레벨별로 분류된 피아노 듀오 문헌⁶³⁾들을 폭넓게 출판하고 있으며 자국 작곡가에 의한 다양한 수준의 피아노 듀오 작품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의 전음악보출판사(全音樂譜出版社)에서 1996년에 출간된 『피아노듀오작품집』(The Collection of Piano Duo)은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작곡한 초급부터 중급수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고 교재 출판 이후 EMI음반회사와의 협력으로 제 1주자와 제 2주자의 연주 음반을 별도로 녹음하여 혼자서도 피아노 듀오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61) 조사 대상 대학은 경희대, 상명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이다.

62) 위클리(Dallas Weekley), 알간브라이트(Nacy Arganbright) 부부는 미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듀오팀으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18세기부터 20세기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듀오 곡들을 알리고 피아노 듀오를 교수학적으로 접근하여 마스터클래스와 워크숍을 통해 피아노 듀오의 교육적 중요성에 대해 전하였다. 이들의 홈페이지(www.weekleyarganbright.com)를 검색해 보면 초급, 중급, 고급 레벨로 나누어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피아노 앙상블 교재가 나열되어 있고 구입도 가능하다. 이들의 연구물 중 일부는 음악춘추사에서 한국어판으로 출판되어 있다.

63) 데니스 아게이(Denes Agay), 한스 귄터 호이만(Hans-Günter Heumann), 랭카스터 부부(E. L. Lancaster, 1948- /Gayle Kowalchuk, 1955-), 베스틴(Jane Smisor Bastien) 등 많은 피아노 교수학자들에 의해 피아노 학습 순서에 맞춰 레벨별로 분류되어 출간된 다양한 피아노듀오문헌들이 있다.

이미 15년 전에 일본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생각해 볼 때 지금도 한국작곡가에 의한 초, 중급 피아노 듀오 작품집이 전무한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피아노 교수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출판사들이 외국의 다양한 피아노 듀오 교재들을 번역하거나 편집하여 손쉽게 교재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표 9>는 국내에 출판된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 교재들을 정리한 것으로 유명 작곡가들의 피아노 듀오 원곡은 물론이고 교향곡, 오페라, 기악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고전 명곡 편곡, 재즈곡, 노래 편곡(민요, 동요, 가곡, 팝송, 만화 주제가, 영화주제가, 크리스마스캐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피아노 듀오 곡으로 편곡되어 있다.

<표 9> 출판사별 피아노 앙상블 교재 출판 현황

출판사	책명	출판사	책명
다라	『피아노 듀엣』 1,2권	음악춘추사 ⁶⁴⁾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네』
뮤직트리 ⁶⁵⁾	『두오콜렉션』		『둘이서 함께 피아노를』 1~3권
	『친구와 함께하는 피아노듀엣곡집』 1~3권		『베스틴 피아노 앙상블 모음』 1(10권), 2(10권), 3(9권), 4(2권)
	『피아노로 즐기는 클래식』 1~3권		『재미있는 연탄곡집』 1,2권
상지원	『듀엣 명곡집』 1~3권		『연탄곡집』 1급~4급
	『앙상블곡집』 1~4급	『크리스마스 피아노곡집』	
삼호뮤직	『어린이피아노연탄곡집』	일송출판사 ⁶⁶⁾	『세계피아노듀오작품대전집』
	『한스귄터호이만 피아노키즈연탄곡집』	일신출판사	『퍼스트앙상블동요곡집』 1,2 (디지털피아노용)
세광출판사	『피아노연탄곡집』	태림출판사	『듀엣고고쟁』
아름출판사	『만화영화연탄곡집』		『피아노연탄곡집』
	『피아노발표회연탄곡집』 1,2		『피아노 듀오앨범』 1,2권
음악세계	『피아노듀엣곡집』 1~4권	현대출판사	『새피아노연탄곡집』
			『앙상블곡집』 1~7권 (디지털피아노용)

이러한 악보 외에도 피아노 듀오에 관련된 이론서들: 『피아노 듀오 문헌』, 『피아노 편곡 작품 목록』(The Pianist's Guide to Transcriptions, Arrangements and Paraphrases), 『한 대

64) 미국의 Neil A. Kjos사와의 출판 계약에 의해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 시리즈를 출판하고 있고 초, 중급 교재 외에도 바흐,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 거쉬인 등 유명 작곡가의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 곡을 출판하고 있다.
 65) 수록된 곡 외 뮤직트리해외원서시리즈를 통해 서머(Schirmer)출판사를 포함한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간된 피아노 앙상블 곡들이 다양하게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66) 소개된 전집 외에도 다양한 듀오곡이 단권으로 출판되어 있다.

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레퍼토리』(Music for more than One Piano: An Annotated Guide)이 출판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피아노 듀오 관련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피아노 앙상블 시간에 <표 9>에서 제시된 교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피아노 앙상블 수업의 목표를 전공 실기 과목처럼 ‘실기 능력 향상’에 두고 한 학기 동안 주어진 곡의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음악 대학 졸업 후 이들이 피아노 교사가 되었을 피아노 듀오 문헌의 단계별 교재 사용이나 적용 방법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구태의연한 레슨 방식을 답습하게 되고 실제 피아노 레슨에서도 피아노 앙상블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피아노 앙상블 수업시간에 이러한 교재들이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피아노 듀오 문헌을 배우고 그들이 피아노 앙상블을 가르칠 수 있는 소양을 익히게 된다면 해당 학생들의 발전 뿐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피아노를 배울 어린 학생들의 음악적 성장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아노 앙상블 수업의 목표를 조금 더 확대하여 ‘다양한 피아노 듀오 문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피아노 듀오 연주 능력 향상’으로 수정하고 수업의 내용도 문헌 교육과 실기 교육이 병행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듀오 문헌을 접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연주하지 않은 곡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피케닐 자매가 9세에 앙카라 필하모니와 데뷔 연주 연주회를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들이 유년시절부터 피아노 듀오 연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피아노 듀오 레퍼토리를 경험 할 수 있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피아노 듀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문 연주자 육성 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를 즐기는 애호가를 양산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의 현장에서 피아노 교사가 피아노 듀오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연주자, 작곡가, 피아노 교수법학자들의 지속적인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 이러한 작품들에 대한 출판사들의 관심으로 피아노 듀오 교육의 토양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주자 양성

미국국제피아노듀오콩쿨⁶⁷⁾(The United State International Duo Piano Competition)의 경우

‘형제(자매) 부문’(sibling category), ‘18세 이전의 학생이 선생님 혹은 부모와 함께 참여 하는 특별 부문’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듀오 레퍼토리를 경험하고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은 연주자들은 자연스럽게 전문 듀오 연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도는 어린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피아노 듀오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피아노 듀오 연주자들에게 요구되는 국제적인 흐름도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다. <표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한국피아노듀오협회의 대학부와 일반부의 예선곡과 본선 곡으로 지정되어 있고 본선 곡은 자유곡으로 참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피아노 듀오 콩쿨에서 지원자들이 콩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제 곡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국내 콩쿨 운영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표 11>은 대표적인 국제 피아노 듀오 콩쿨의 지정곡을 수록한 것이다.

<표 10> 2010년 한국피아노듀오콩쿨 요강

부문	참가자격	A부문 (1piano 4hands)	B부문 (2pianos 4hands)	작곡
초등부(1,2학년)		자유곡 5분 내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초등부(3,4학년)		자유곡 5분 내외	해당없음	
초등부(5,6학년)		자유곡 5분 내외	해당없음	
중등부		자유곡 7분 내외	자유곡 7분 내외	
고등부		자유곡 7분 내외	자유곡 7분 내외	
대학생부		-지정곡- Mozart, Clementi, Beethoven의 곡중 빠른 악장 (반복없이) -자유곡 8~15분		2 pianos 4 hands 미발표신곡 8분 내외
일반부		-지정곡- Mozart, Clementi, Beethoven의 곡중 빠른 악장 (반복없이) -자유곡 8~15분		

<표 11> 국제 피아노 듀오 콩쿨 지정곡 비교

	드라노프국제피아노듀오콩쿨 ⁶⁸⁾	뮌헨ARD국제콩쿨 ⁶⁹⁾
1차	피아노 듀엣곡을 포함한 45분 리사이틀 프로그램 ⁷⁰⁾	1) 제시된 Wolfgang Amadeus Mozart의 작품 중 1곡 Sonata KV 358,

67) <http://www.usidpc.org>

	드라노프국제피아노듀오콩쿨 ⁶⁸⁾	뮌헨ARD국제콩쿨 ⁶⁹⁾
		Sonata KV 381, Variations KV 501 2)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작품 중 자유선택
2차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구성된 45분 리사이틀 프로그램	제시된 작품을 포함한 30분 리사이틀 프로그램 1) Franz Schubert, <i>Andantino varié</i> . D823/2 2) Frédéric Chopin, Rondo Op.73 3) 자유곡
3차	총 4 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 1) 피아노 듀엣 곡으로만 구성된 45분 리사이틀 프로그램 2)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곡으로 구성된 45분 리사이틀 2회 3) 제시된 작품을 포함한 리사이틀 ① Max Reger <i>Introduktion, Passacaglia und Fuge</i> , Op.96 혹은 <i>Variationen und Fuge über ein Thema von Beethoven</i> , Op.86 ② George Gershwin(Paul Posnak 편곡)의 <i>Four Songs</i> 중 3개 악장 I. But Not For Me II. So Wonderful/Funny FAce III. It Ain't Necessarily So. ③ 2008콩쿨 위촉 작품: Sir Rodney Bennett 의 <i>Liliburlero Variations for Two Pianos</i>	제시된 작품으로 구성된 60분 리사이틀 프로그램 1) 제시된 모차르트의 작품 중 한국 Sonata KV 448, Sonata KV 497, Sonata KV 521 2) 제시된 곡 중 한국 Feruccio Busoni, <i>Fantasia Contrappuntistica</i> . Franz Liszt, <i>Concerto pathétique</i> . 혹은 <i>Réminiscences de Don Juan</i> . Sergei Rachmaninov, <i>Fantaisie Tableaux</i> . Op.5 혹은 <i>Suite No.2</i> Op.17 Max Reger, <i>Introduktion, Passacaglia und Fuge</i> . Op.96 Ludwig von Beethoven, <i>Variations</i> Op.86 Wolfgang Amadeus Mozart, <i>Variations</i> Op.132a Camille Saint-Saëns, <i>Beethoven Variations</i> Op.35 Robert Schumann, <i>Andante and Variations</i> Op.46 3) 콩쿨 위촉 작품 Minas Borboudakis, <i>Works for piano duo</i>
4차	오케스트라와 지정곡 협연 Max Bruch, Piano Concerto for Two Pianos and Orchestra Op.88a	제시된 작품으로 구성된 60분 리사이틀 프로그램 1) Johann Sebastian Bach, Concerto, C major BWV 1061a 2) 1950년대 이후에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주요 작품 중 한국 Pierre Boulez, <i>Structures I</i> (1952) Brian Ferneyhough, <i>Sonata</i> (1970) Jacqueline Fontyn, <i>Spirules</i> . for two pianos (1971) Martin Haselböck, <i>Quattro</i> (1983) Ulrich Leyendecker, <i>Sonata</i> (1985) György Ligeti, <i>Three pieces</i> (1976) Manfred Trojahn, <i>La Folia</i> .(1982) Brend Alois Zimmermann, <i>Perspektiven</i> .(1955) 3) 제시된 Franz Schubert의 작품 중 1곡 Sonata D. 617 Variations on a theme from the opera "Marie"

	드라노프국제피아노듀오콩쿨 ⁶⁸⁾	뮌헨ARD국제콩쿨 ⁶⁹⁾
		D. 908 Allegro D. 947 4) 제시된 작품 중 1곡 Claude Debussy, <i>En Blanc et Noir</i> . Maurice Ravel, <i>La Valse</i> . 혹은 <i>Rhapsodie espagnole</i> .
5차		제시된 콘체르토 중 한국 1) Felix Mendelssohn Bartholdy, Concerto E major 2) Wolfgang Amadeus Mozart, Concerto E flat major KV 365 3) Bohuslav Martinů, Concerto(1943) 4) Francis Poulenc, Concerto D minor

따라서 국제 수준에 걸 맞는 전문 듀오 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콩쿨에 응시할 수 있는 대학생부와 일반부의 지정곡을 보다 확대하고 콩쿨 지정곡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제 콩쿨의 경우 최종 결선에서는 항상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이루어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피아노듀오협회콩쿨도 오케스트라와의 후원 혹은 연계 작업을 통해 이러한 콩쿨 지원자들에게 최종 결선을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욱 많은 참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KBS한전음악콩쿠르가 KBS교향악단과 연계되고 수리음악콩쿠르가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후원을 받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공연장과 지역 오케스트라가 생기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 단체들과 협력한다면 서로가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Ⅲ. 결론

2009년의 피아노 듀오 연주회 프로그램 분석 작업을 통해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이

68) 2008년 11회 드라노프콩쿨의 요강을 기초로 수록되었으며 제시된 모든 곡은 암보로 연주되어야 한다(http://dranoff2piano.org/application_2008.pdf).

69) 2010년 59회 뮌헨 ARD 콩쿨의 요강을 기초로 수록되었으며 1차는 CD녹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3차의 2)번, 3)번 항목, 4차의 1)번, 2)번 항목은 암보로 연주되어야 한다(<http://www.br-online.de/br-klassik-english/ard-musikwettbewerb/index.xml>).

70) DVD로 심사를 한다.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연주곡을 분석해 본 결과 10년 전에 연주자들이 선호한 작품은 여전히 2009년 현재에도 자주 연주되는 작품으로 선정되어 시대에 상관없이 대중적인 선율을 가진 연주 효과가 높은 작품이 연주자들에게 애호되는 작품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 작품 초연 무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 작곡가의 창작품 연주는 전체 연주곡(266곡)의 3%(8곡)밖에 차지하지 않고 연주된 작품들도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창작곡의 연주와 보급에 대한 숙고가 요구된다. 프로그램의 구성 면에서 관찰해 보면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음악회나 몇 년에 걸쳐 시리즈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연주자들의 활동이 부각되었고 피아노 여러 대를 사용한 음악회, 피아노와 다른 악기들(팀파니, 트럼펫, 드럼, 콘트라베이스, 엘렉톤 등)이 앙상블을 이루는 색다른 조합의 음악회들이 많이 시도되었다. 이외에도 특별한 대상 혹은 목적을 위한 음악회들이 다수 개최되어 음악을 통한 사회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연주자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개최되고 있는 음악회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 2인 음악회, 2) 피아노 앙상블 연구 단체 혹은 협회 주최로 열리는 음악회, 3) 특정 교수의 문하생들로 구성된 음악회, 4) 학교 이름이 부각된 음악회. 분석 과정에서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 피아노 듀오 팀이 혈연관계, 혹은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멤버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많고 1년에 수십 회씩 연주회를 개최하는 전문 듀오 연주 팀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0년 이상 피아노 듀오 음악을 연구해 온 전문 피아노 앙상블 단체나 협회들이 다수 있어 그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현재 한국피아노듀오음악계의 토양을 갖추게 하는 거름이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주하는 ‘사제 음악회’가 듀오 연주의 활성화에 한 몫을 담당하였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세 번째로 공연장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350석 이상의 연주 홀 중에서는 영산아트홀(17회)이 가장 선호되는 공연장으로 나타났고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모차르트홀(29회)이 연주회 개최 횟수가 가장 높았다. 조사과정에서 피아노 듀오 연주를 하기 위한 절대 조건인 피아노 두 대가 동일한 제품을 가진 공연장이 조사 대상 18개 공연장 중 7개밖에 되지 않아 듀오 연주를 하기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공연장들이 충분하지 않고 7개의 공연장 모두 350석 이상의 공연장이어서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연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연구 과정을 통해 한국피아노듀오협회가 창립된 20년 전에 비해 피아노 듀오 연주회

가 과거에 비해 괄목상대하게 늘어나고 피아노 듀오 연주회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간 한국 피아노 듀오 음악계가 이룬 놀라운 성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피아노 듀오전문 연주자의 양성은 향후 해결되어야 할 큰 과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피아노 듀오 교육 시스템이 대학 교육에서 이루어져서 초급 피아노 교육에서부터 고급 피아노 교육까지 단계적으로 피아노 듀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사의 양성과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순수하게 피아노 듀오만을 학문적으로 파고드는 연주자가 많아질 때 세계적인 콩쿨에서 입상하는 연주자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연주자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게 될 때 피아노 듀오 연주에 대한 관심과 학문의 수준은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연주자들이 전문 듀오 연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피아노 듀오 콩쿨 유치, 다양한 피아노 듀오 레퍼토리 개발과 보존 작업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 재정 확보는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외국의 주요 콩쿨이 여러 후원 단체: 오케스트라, 방송국, 공연장, 은행, 호텔, 출판사, 음반 제작사, 약기사, 박물관, 국제 교류 단체, 학회 등의 다양한 후원을 등에 업고 개최되고 드라노프피아노두오콩쿨이 앨빈 펄만 가족(Alvin Perlman Family)의 도움으로 창작곡 위촉과 보존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향후 피아노 듀오 음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피아노 듀오를 후원하는 단체나 개인을 확보하는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피아노 듀오 교육 전반과 전문 피아노 듀오 연주자 양성에 대해 숙고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우리나라 피아노 듀오 연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기반으로 주기적으로 후속 연구를 지속하여 시대별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면 한국피아노 듀오 음악의 발전사를 관찰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되리라 생각된다.

주 제 어 피아노 듀오, 연주회, 레퍼토리, 콩쿠르

Piano Duo, Recital, Repertoire, Competition

참고문헌

- 국지연. “아름다운 어울림, 임자향.” 『피아노음악』 322 (2009), 51쪽.
- 권장금. “피아노 듀오 연주회 레퍼토리 분석: 2003년에서 2007년 국내 서울 지역.”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
- 김도실, 강성애. 『피아노 듀오 문헌』. 서울: 일송출판사, 2002.
- 남성희. “한국피아노 듀오 연주 문화 현황 및 분석: 서울·부산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 박미경·김진양. “대구지역 피아노 연주회 곡목의 총람 및 분석(1960-1991/6).” 『음악과 민족』 4 (1992), 239-275쪽.
- 서심미. “부산피아노연주사(1973-1982).” 『음악과 민족』 29 (2005), 209-230쪽.
- _____. “부산피아노연주회 현황과 분석: 1983년에서 1986년까지.” 『음악과 민족』 38 (2006), 203-240쪽.
- _____. “부산피아노연주회 현황과 분석(1987-1989).” 『음악교육공학』(2009), 51-66쪽.
- Hinson, Maurice. *Music for more than One Piano: An Annotated Guid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1. 이민숙, 이승경 역. 『한 대 이상의 피아노를 위한 레퍼토리』. 서울: 뮤직필, 2005.
- McGraw, Cameron. *Piano Duet Repertoire: Music Originally Written for One Piano, Four Hand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 Slenczynska, Ruth. *Music at Your Fingertips: Advice for The Artist And Amateur on Playing The Piano*. New York: Doubleday & Co, 1961. 손국임 역. 『피아노 음악의 창조: 입문에서 연주까지』. 서울: 음악춘추사, 1981.

<웹사이트>

- 금호아트홀. <<http://www.kumhoarthall.com>>
- 나루아트센터. <<http://www.naruart.or.kr>>
- 마포아트센터. <<http://www.mapoartcenter.or.kr>>
- 명동성당대성진. <<http://www.mdsd.or.kr>>
- 모차르트홀. <<http://www.mozarthall.co.kr>>
- 문호아트홀. <<http://www.kumhoarthall.com>>
- 부암아트홀. <<http://www.buamart.co.kr>>
- 서울피아스트라. <<http://www.seoulpiastra.com>>
- 세라믹팔레스홀. <<http://www.cphall.org>>
- 세종체임버홀. <<http://www.sejongpac.or.kr>>
- 영산그레이스홀. <<http://www.youngsanartall.co.kr>>
- 영산아트홀. <<http://www.youngsanartall.co.kr>>

영산양재홀. <<http://www.youngsanhall.com>>
예술의전당리사이틀홀. <<http://www.sac.or.kr>>
예술의전당콘서트홀. <<http://www.sac.or.kr>>
이원아트홀. <<http://www.ewoncc.net>>
한국피아노두오협회. <<http://www.piano-duo.co.kr>>
호암아트홀. <<http://www.hoamartmall.org>>
KAG 아트홀. <<http://cafe.naver.com/kaghall>>
KBS홀. <<http://office.kbs.co.kr/kbshall>>
Aloys and Alfons Kontarsky. <http://en.wikipedia.org/wiki/Aloys_and_Alfons_Kontarsky>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http://www.br-online.de/br-klassik-english/ard-musikwettbewerb/index.xml>>
Güher & Süher Pekinel. <<http://www.pekinel.com>>
Katia & Marielle Labeque. <<http://labeque.com>>
Peter & Patrik Jablonski. <<http://www.jablonskibrothers.com>>
The Dranoff International Two Piano Foundation. <<http://www.dranoff2piano.org>>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uo Piano Competition. <<http://www.usidpc.org>>
Weekley & Arganbright. <<http://weekleyarganbright.com>>
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s in Geneva. <<http://www.wfimc.org>>

<정기 간행물>

『피아노음악』 2009년 1월호~12월호.
『인터내셔널피아노』 2009년 1월호~12월호.

<통신>

강성애 (개인적 통신, 2010.3.18)
김경리 (개인적 통신, 2010.3.15)
김성은 (개인적 통신, 2010.3.15)
김승희 (개인적 통신, 2010.3.15)
김영숙 (개인적 통신, 2010.3.18)
김희균 (개인적 통신, 2010.2.4)
김희진 (개인적 통신, 2010.5.6)
권수진 (개인적 통신, 2010.3.17)
민경식 (개인적 통신, 2010.5.6)
서계령 (개인적 통신, 2010.5.6)

신정아 (개인적 통신, 2010.5.6)
이방숙 (개인적 통신, 2010.5.6)
이신원 (개인적 통신, 2010.5.6)
이영자 (개인적 통신, 2010.3.19)
장리리 (개인적 통신, 2010.3.15)
장형준 (개인적 통신, 2010.5.6)
전경주 (개인적 통신, 2010.3.15)
정자영 (개인적 통신, 2010.5.6)

Abstract

Suggestions through Analysis of Piano Duo Recital Programs in Seoul in 2009

Ryu Seung-Ji

The year of 2009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 Piano Duo Association. Public perceptions of piano duos have much changed for the last 20 years since its foundation, when people were unfamiliar with the form of performance. Coming of age, Korea's piano duo scene now needs to take a new leap for further growth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issues, this study analyzed the programs of piano duo recitals held in Seoul in 2009,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 players, and investigated the following elements:

- 1)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do their programs have and how are they organized?
- 2) How are the players organized, and how are the professional duo teams carrying out their activities?
- 3)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do the places where the piano duos performed have?

The analysis results focusing on those elements show that piano duo recitals made a considerable increase in numbers compared to the past and grew exceptionally in diversity of performance. As people augmented their interest in the teaching methods of the piano in the 1990s, various books on piano duos have also been published in the country. Despite all those improvements, however, few received systematic education for piano duo performance starting in childhood, and there were no professional piano duo teams that held scores of piano duo recitals a year as is the case in other countries.

The causes can be found in the lack of interest in bringing up professional piano duo players due to the lack of perception of piano duo educational effects and the resulting absence of systematic education provided to children, and also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how international professional piano duo teams performed their activities.

Thus they need to follow the international trends in improving the educational system and creating a performance-based culture in order to apply piano duo performance to education more effectively and produce world-class piano duo teams in the n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ill hopefully create an opportunity to take deep consideration of overall piano duo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piano duo players, thu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Korea's piano duo education.